

안동(安東)지역의 용(龍)단지

金明子

(安東大 民俗學科 教授)

목차

I. 머리말

II. 용(龍)단지 신앙(信仰)의 양상(樣相)

III. 업신(神)과 동일시되는 용(龍)단지

IV. 맺음말

I. 머리말

용단지는 경북(慶北) 안동(安東)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가신신앙(家神信仰)의 한 형태다. 가정에 따라 여타의 가택신은 사라지거나 혹은 있더라도 신체(神體)가 없이 건궁으로 위해지지만 용단지만은 가택신을 모시는 대개의 가정에서 신체를 갖추고 위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용단지 신앙은 용 또는 용신(龍神)을 모시는 신앙이며 용단지는 이 신을 형상화한 신체명(神體名)이다. 이는 삼신을 위하는 가정에서 신의 이름을 신체명 그대로 ‘삼신바가지(삼신바가지)’, 삼신단지라고 하며 성주를 모시는 가정에서 성주단지, 성주동우(성주동우), 터주를 신체명 그대로 터주가리라고 하는 것과 같은데 이들 가택신의 경우 신체명과 신명(神明)을 동시에 쓰는 반면 용단지 신앙의 경우 신명(神名)을 신체명 그대로 용단지라고 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사실상 용신은 가신으로 뿐 아니라 마을신(洞神)으로도 폭넓게 위해지는 우리 민간신앙의 다신(多神) 가운데 하나다. 해촌(海村)에서는 풍어제(豐漁祭) 때 마을신으로서의 용왕신(龍王神)(또는 용왕(龍王))을 받들어 어업의 풍어와 마을의 평안을 빌며 농촌에서도 용왕을 받들어 풍농제(豐農祭)인 용왕제(龍王祭)를 지낸다. 용왕은 하늘과 바다를 오가며 비를 비롯한 자연현상을 관장하는 전능한 존재로서 어업의 신이자 농경신으로도 받들어지기 때문이다. 가정에서도 가택신으로 용신을 받들어 정월 대보름과 같은 특별한 날 바닷가나 냇가에 가서 용왕제를 올리거나 집안의 우물에 있는 정신(井神)(우물신. 이는 곧 용신 또는 용왕으로 일컬어져 위하고 있다)을 받들어 가내의 평안과 풍요를 빌기도 한다. 정월 대보름날 새벽 마을 우물에서 뜬 물을 용알이라고 하며 이 물로 밥을 지으면 그 해에 풍농하고 집안이 평안하다고 믿는다. 역시 용신신앙의 한 형태다.

안동지역에서 용단지를 위하는 것은 농경신인 용신을 받들므로써 농사의 풍작을 비롯하여 집을 지켜주고 집안의 재물을 보살펴주며 아울러 집안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다. 가택신은 저마다 고유의 기능이 있지만 또한 다른 가택신의 기능이 혼재되어 있다. 농경신으로서의 성격은 가택신이 전반적으로 지니고 있는데 용단지는 보다 농경성이 강하다. 말하자면 농경을 보살펴 주는 일은 용단지의 고유 기능인 것이다. 그런데 용단지는 또 집을 수호하고 재물을 관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의 가택신인 업신 또는 터주신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특히 터주신에 대한 관념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 지역에서는 용단지를 업신과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편적이다.

오늘날 농사를 짓지 않는 가정에서도 용단지를 그대로 위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안동시에 거주하는 황귀중씨(여. 93년 현재 61세)댁에서는 전에 태화동 개인주택에 살 때부터 모시던 용단지를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그대로 가지고 와 모시고 있다. 이 댁에는 농사일이 없지만 용단지를 소중하게 위한다. 역시 농사일이 없는 안동시 광석동 김(金)씨(여. 93년 현재 64세)댁에서도 용단지를 예전부터 모시고 있다. 용단지에 대한 의례는 주부가 맡고 있는데 김(金)씨의 경우 가을 수확기의 정기 의례 이외에 그 해에 유난히 가뭄이 계속되거나 홍수 또는 바람이 심할 때에도 의례를 행한다. 이 때에는 밥, 떡, 과일 등 음식을 장만하여 주부가 제주(祭主)가 되어 비는데 가능한 한 소리없이 심지어 주부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지낸다.

안동군 남선면 이천동 지천 송(宋)씨마을에서는 요즘도 성주, 용단지, 그리고 삼신을 모시는 가정을 종종 볼 수 있다. 자신을 지천 송씨(남. 89년 조사 당시 57세)라고만 밝힌 한 제보자는 가택신으로 성주와 용단지, 조왕, 삼신을 믿고 있는데 현재 용단지만 신체를 봉안하고 있다. 전에 양옥집이 들어서기 전에는 성주와 삼신의 신체가 있었으나 주택을 개량하면서부터 건궁성주, 건궁삼신으로 위한다. 조왕은 전에도 건궁으로 위했는데 안동에서는 조왕을 건궁으로 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용단지는 새로 집을 짓기 전부터 위하던 것을 그대로 위하는 것이다.

농업이 생업이었던 농경사회에서는 재물의 기본이 곡물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다른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용단지가 집을 수호해 주고 재물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든 혹은 생업이 다르든 주요 가택신으로 모시는 것이다.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문화재관리국 경북편(文化財管理局慶北篇) 1980:161)에 의하면 용단지 사례가 조사된 곳은 안동지역 뿐이었다. 물론 조사지역의 한계는 있겠으나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사실상 용단지는 인근 예천과 풍기, 상주에서도 산발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역시 안동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가택신이다. 과거 1930년대에도 경북 안동지방에서는 농가 각호에서 농번기 또는 명절에 성주 또는 용단지에 청수(淸水)나 음식물, 햇곡, 햇보리 등을 올리고 그 해의 풍작을 기원하는 풍신제(風神祭)를 지냈다는 기록(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篇 1938:311)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안동지역의 용단지는 상당한 역사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역에서도 용(용신 또는 용왕이라고 한다)을 가택신으로 모시는 경우가 있지만 용단지처럼 신체가 형상화하는 것은 아니다. 대개 특별한 날 바닷가나 강가에 나가 제를 올리거나 집 또는 마을에 있는 우물 앞에서 제를 올린다. 그러나 용단지 신앙의 경우 신체가 형상화되어 바로 그 앞에서 의례를 올린다. 이와 같이 신체가 뚜렷이 형상화되어 모셔지는 용단지가 안동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그 주변에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듯이 전남에는 칠룡단지라는 명칭이 독특하게 나타난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 글에서는 안동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용단지의 실상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II. 용(龍)단지 신앙(信仰)의 양상(樣相)

1. 용단지의 자리와 신격

용단지는 집안의 농사를 비롯하여 재물을 불게 해주고 집을 지켜주며 가내의 평안을 도모해 주는 가택신이다. 특히 곡물을 비롯한 재물을 관장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 자리도 이들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흔히 용단지는 ‘용이 드는 자리에’에 모신다고 하는데 여기 용이 드는 자리란 바로 재산이 들고 집안을 잘 수호해 주는 곳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용단지의 자리는 대체로 곡물이 취급되는 부엌이라든가 고방, 안방 위 다락, 뒤뜰 처마밑 또는 뒤란 등이 되는데 이는 가옥 구조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다(金明子 1984:234). 그런데 이러한 용단지의 자리는 용단지의 신격을 설명하는 단서가 된다 곧 용단지는 이처럼 재물이 있는 곳에 자리함으로써 재복과 관련된 신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 재물의 기본은 곡물이며 따라서 용단지는 농경신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앞에서 밝혔던 1930년대 안동의 용단지 의례의 예도 바로 용단지의 농경신으로서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다.

용단지의 단지 안에는 쌀을 넣은 후 그 위에 한지를 덮어 실타래로 동여맨 다음 깨끗하고 평평한 돌을 얹어 놓는다. 각별히 돌을 얹는 것은 다른 잡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도 한다(金明子 1988:64). 단지 안의 쌀은 주로 음력 10월 추수기에 햅곡이 나면 갈아넣는다. 이 안에 넣었던 쌀은 절대로 집밖에 내가지 않고 밥을 짓거나 떡을 쪄 가족들끼리만 먹는다. 이 곡물은 복(福)을 주는 신성물(神聖物)로서 밖에 내가는 것은 바로 재복을 내보내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쌀이 귀해 용단지에 있던 쌀로 밥이나 떡을 했지만 요즘은 쌀이 흔해져 고추장을 담그거나 혹은 감주를 만들어 먹기도 한다.

용단지는 한 개, 두 개 또는 세 개를 모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두 개를 모신다. 꺼칠용과 쌀용의 두 개인데 여자를 상징한다는 쌀용은 안용이라고도 하며 이 속에는 쌀을 넣어 두며 남자를 상징하는 꺼칠용 단지에는 나락을 넣어둔다(金明子 1988:64). 또는 나락을 넣은 것을 건용이라고도 한다. 두 개의 용단지는 이를테면 영감·마누라의 부부용을 모시는 것이라고 제보자들은 말한다.

안동군 남선면 이천동의 제양댁(89년 조사 당시 64세)은 부엌의 구석진 곳에 쌀용과 건용을 위하는데 용단지에 넣는 곡물로 여름철에는 보리를 넣어두고 가을철 햅쌀이 나오면 그 쌀로 갈아 넣는다. 역시 이천동의 부곡댁(89년 조사 당시 60세)의 경우, 전에는 부엌 구석에 용단지를 모셨으나 집을 개량한 후 부엌이 전과 달라져 용단지 두 개를 마루에 봉안했다. 처음에는 용단지 하나를 위했으나 막내아들이 하는 일이 잘 안되어 용단지 하나를 더 위하게 되었는데 그 후 무난하게 일이 풀렸다. 가을에 햅쌀을 용단지에 넣어 두는데 여기에 넣는 쌀만은 인분도 사용하지 않은, 각별하게 마음써서 농사지은 곡물이다. 그런가 하면 가정에 따라 차이가 있어 두 개의 용단지를 모시지만 이들을 부부로 보지 않고 달리 여기는 경우도 있다. 곧 마루나 다락 위에 안용을 모시고 거기에는 해마다 음력 10월 추수를 하면 수지쌀을 넣으며 꺼칠용은 부엌의 어둡컴컴하고 어설픈 데에 놓는데 이 속에는 꺾곡(겉보리 나락)을 넣는다. 꺼칠용은 악한 신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金明子 1989:419) 또 두 개의 용단지를 각기 다른 곳에 모시는 경우도 있지만 모두 곡물을 비롯한 재물과 관련된 곳에 모신다. 안동군 일직면 구천리 신수선할머니

(여. 93년 현재 79세)는 부엌에는 마누라를 상징하는 쌀용을, 뒤꼍에는 나락을 넣은 꺼칠용을 두는데 꺼칠용은 남편을 상징한다. 신할머니는 용왕님을 모셔야 집에 재수가 있으며 용단지는 집지키미라고 말한다.

용단지는 집지키미의 역할도 해주어 극진히 모시면 재물을 불게 해주고 집안이 평안하도록 지켜준다고 믿는다. 따라서 용단지를 잘 모셔야 하며 명절에 의례를 올릴 때에는 명절식을 바친다. 특히 정월 대보름에는 찰밥을 지어 올리는데 이는 용이 살찌라는 뜻이며 그러기 위해 보다 잘 대접한다(金明子 1988:65). 용이 살찌다는 것은 풍농을 뜻하며 재물이 불었다는 의미도 있다.

참고로 신수선할머니가 용단지에 비는 주문(呪文) 내용을 소개한다.

“이 터전에 용왕님네는 어에든둥 농끼 비끼 둘러가지고 자주자주 부까주고 한 피기 숨그거든 밧가지씩 벌어주고 밧천만을 벌어주고 용왕님의 덕택인줄 아옵니다. 미련한 이 증상은 천지분간을 모르다게 모든 것을 잘못해도 여러 가지로 용왕님의 덕택으로 물침을 하여 주시옵소서”

‘한 피기(한 포기) 심거든 밧가지씩(밧가지씩) 벌어주고 밧천만을(밧천만을) 벌어주고...’라고 하는 주문에서도 용왕이 농경신 또한 재복신(財福神)임이 드러난다.

2. 용신맛이 양상

용단지는 무작정 모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가신신앙이 대체로 주부들에 의해 전승되듯이 용단지 역시 옷 어른(시어머니)이 모셨기 때문에 새로 시집은 며느리가 그대로 모시는데 그밖에 점괘에 의하거나 현몽에 따라 새로 모시는 경우도 흔하다.

영감·마누라 두 개의 용단지를 뒤란 축대 위에 나란해 모시고 있는 안동시 송천동의 권점선할머니(1988년 조사 당시 83세)는 현몽에 의해 용단지를 모신다고 했다. 꿈에 용이 나타나면 모시는데 용을 모시려면 가택신을 모실때와 마찬가지로 무당에게 길일(吉日)을 잡아야 한다. 주부는 ‘용왕님’을 모시기 위해 용기로 된 용단지를 사온다. 이 때 장에 가서도 첫 눈에 들어오는 것을 골라 용구(용기)장사가 값을 부르는대로 주고 절대 깎지 않으며 물건을 고른 후에는 다른 물건을 보지 않는다. 용단지를 모셔놓고 빌 때 주부는 목욕재계하고 가족들도 모두 금기하며 조신한다. 제물을 차리고 무당이 ‘용왕님. 용왕님 계시는데 성심으로 가져왔니더’고 축원을 하면 할머니는 성심껏 빈다(金明子 1988:64).

안동군 남선면 도로동, 사부골의 배순안할머니(93년 현재 85세)는 선대부터 용단지를 위해 왔지만 같은 마을의 이숙자씨(여. 93년 현재 39세)는 현몽이 있어 용단지를 위하게 되었다. 이(李)씨가 시집은 지 얼마 안되어 커다란 누런색 구렁이가 3일 내내 꿈에 보이는 것이었다. 또 부엌에서 맑은 샘물이 흐르는 꿈을 꾸어 이상하게 생각하고 무당에게 물으니 친정에서 시집에 복(福)을 가져온 것이라며 용단지를 모시라고 했다. 그래서 길일(吉日)을 잡아 용을 맞고 지금까지 귀하게 위하고 있다.

교회에 다니면서부터 가택신을 모시지 않지만 그 전에는 용단지, 성주, 삼신 등을 극진히 모셨던 안동시 송천동(安東市 松川洞)의 강옥분씨(여. 1988년 조사 당시 64세)가 용단지를 모시게 된 것은 점장이의 점괘에 의한 것이었다. 막내를 설혼아홉에 낳은 후 아이들이 계속 아프고 집안에 엇짱은 일이 계속 생겨 어디가서¹⁾ 물으니까 강씨가 시집

1) 여기 어디란 점장이와 같이 전문적으로 점을 치거나 날을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을 때 용을 가마 안에 싣고 왔다는 것이다. 이처럼 용이 따라 왔는데 모시지 않아서 ‘자꾸만 재수가 좋지 않고 탈이 생기고 큰 아들이 직장을 얻으이 터지구, 또 직장을 잡으이 터지구, 계속 좋지 않는 일이 생겼다. 그러니 용을 모셔야만 모든게 재수가 있고 집안이 일어날 수 있다’하여 막내 아들이 아홉 살 때(1988년 당시 25세)뒤늦게 용을 모셨다. 이를테면 용을 모셔야 되는 것을 몰라서 몇년동안이나 고생을 하다가 결국 모신 것이다. 용을 모시기 위해서는 우선 길일(吉日)을 잡아 큰 물의 소(沼)에 가서 용을 맞이해야 한다. 이 때 무당이 해주는 수도 있지만 주부가 직접 맞이하는 경우도 있다. 강씨는 직접 용맞이를 했다. 흰밥과 미역국, 과실 등의 제물을 장만하여 낙동강가에 있는 선어대소(沼)로 갔다. ‘용머리’라는 곳에 제물을 진설하고 빌며 용왕을 맞았다. 용을 맞아 한지에 싸 집으로 가지고 온 뒤 쌀과 함께 단지에 넣고 뚜껑을 닫았다. 그리고는 뚜껑위를 다시 한지로 덮고 그 위를 돌로 눌러 놓았다. 용단지를 위한 후 매일 새벽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용단지에 올리고 가족의 평안을 빌었다. 그러나 자녀들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면서부터 ‘내가 두 마귀를 지키면 어떻게 하노. 두가지 지키면 이것이 자꾸 마귀가 안될다 싶어...’ 결국 용단지와 함께 그 전부터 위하던 성주, 삼신바가치고 없었다. 용단지 안에 있던 쌀은 밥을 지어먹고 용을 맞아왔던 한지와 단지를 덮었던 한지는 소지를 올리고 단지는 집에서 사용하고 있다(金明子 1988:65~66).

역시 기독교 신자가 되면서 가택신을 모시지 않게 되었다는 안동군 임하면 금소동(安東郡 臨河面 琴韶洞)의 김순연씨(여)의 경우도 시집을 때 용이 따라와 모셨었는데 시집오기 전부터 시댁에서 위하던 것은 부엌에,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온 용단지는 고방에 모셨었다.

안동군 일직면 구천리 김순희씨(여, 93년 현재 68세)는 점괘에 따라 용신을 위하기 시작했다. 보살(점장이)이 물에 가서 용신을 맞아왔는데 이 때에는 실에 돈을 달아 물에 떠내려 보내다가 용신이 맞아지면 그 실을 다시 끌어 올린다. 이 때 실과 함께 용이 끌려오므로 무척 무겁다 단지에 쌀을 쪼어넣고 물을 부어놓는데 다음날 물이 불어 있으며 용신이 들어앉았다 하고 이 후 용단지를 모시기 시작한다. 역시 구천리의 신수선할머니도 용은 물에 가서 청해다가 모신다고 말한다.

용단지는 현몽을 하거나 음력 정월에 신수를 보아 용단지를 모시라는 점괘가 나왔을 때에도 모시지만 혹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좋지 않은 일이 계속 생겨 점장에게 물으니²⁾ 용단지를 모셔야 한다는 점괘가 나와 모시는 경우가 흔한데 이는 용단지 뿐 아니라 다른 가신(家神)을 모시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평소 가신을 모시지 않던 가정에서도 일이 생겨 느닷없이 모셔야 하는 경우도 있다. 풍기(豊基)지역의 송(宋)수희씨(여, 93년 현재 53세, 시댁은 원래 청송)는 15년 전 뒤늦게 용단지를 모셨다. 전에 시어른과 함께 살 때에는 시어머니가 용단지를 모셨었는데 송씨의 남편이 차남이어서 분가(分家)하면서부터 별도로 용단지를 모시지 않았다 그러나 송(宋)씨가 계속 몸이 아프자 시어머니께서 권해 용단지를 모시게 되었는데 그후 건강이 좋아지고 지금까지 마음의 기둥이 되고 있다. 역시 풍기의 김순녀씨(여, 93년 조사 당시 57세)는 현재 성주 신체만을 봉안하고 위하는데 전에는 용단지와 삼신도 신체를 봉안했었다. 이들 가택신은 선대에서부터 위했던 것을 이어 받았으며 용단지의 신체는 이제 없지만 요즘에도 용단지가 자리했던 광에 대해 각별한 마음을 쓴다. 특히 김씨는 용단지의 용이 구렁이엽이라 생

2) 처음부터 점장을 찾아가서 묻는 경우는 드물다. 우환이 있을 경우 처음에는 약을 복용하거나 의료기관을 찾다가 그래도 후련치 않으면 이런저런 궁리를 하고 대안을 찾다가 최동에 가서 점장과 같은 사람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한다(金明子 1993:185~186).

사실상 용단지는 건궁이 거의 없다 만약 용단지의 신체를 없앨 경우 그 자리에 대한 신관념의 잔재는 있지만 그렇다고 전처럼 의례를 올리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신체가 없어졌을 경우 건궁으로라도 위한다.

안동군 남선면 도로동, 사부골 권순옥씨(여. 1989년 조사 당시 38세)댁의 용단지는 안방과 연결되어 있는 다락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 자리는 무당의 내림을 받아서 잡은 것이다. 한 되들이 정도의 작은 단지에 쌀을 3분의 2쯤 담아놓았다. 맞은 편 구석에는 쌀이 아닌 나락(벼)을 담은 똑같은 크기의 용단지를 놓았으나 실수로 깨뜨린 후 다시 장만하지는 않고 대신 건궁으로 위하고 있다. 이 용단지는 조상 대대로 모신 것인데 의례 때에는 건궁 용단지에도 함께 올린다.

3. 용단지에 대한 의례(儀禮)

용단지에 대한 의례는 가정에 따라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으나 다른 가택신과 마찬가지로 설날, 정월 대보름, 추석, 동지 등의 명절과 추수 때에 올린다. 또는 봄에 햇보리가 나면 용단지의 곡물을 갈아주고 다시 가을에 햇쌀이 나왔을 때 갈아넣고 간단히 의례를 올리는 가정도 있다. 이 때에는 밥 한 그릇과 정화수 한 그릇을 떠 올리고 주부가 수확을 기리며 또한 농사 잘되기를 빈다. 그밖에 봄에 풍농을 위해서 용단지에 제를 올리거나 또는 가뭄이 오래 들거나 홍수가 심할 때에도 임시제로서 용단지에 의례를 올려 비오기를 기원하거나 비를 알맞게 조절해줄 것을 기원한다. 이는 용이 농경신이자 수신(水神)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³⁾ 모심기 철이나 논매기 철에 용단지에 들어있는 쌀을 가지고 밥을 지어 먹으면 그 해 풍년이 든다고 하여 용단지에 있는 쌀을 어느 정도 퍼내어 밥을 지어 먹기도 하는데 여기서도 농경신으로서의 성격이 나타난다(金明子 1987:42). 의례 때 제물로 설날, 대보름, 추석 등의 명절에는 정갈한 밥 한 그릇과 정화수 한 그릇을 올린다. 특히 동짓날에 팔죽을 쑤면 성주라든가 조왕, 삼신, 용단지 등 주요 가택신에게 각각 떠놓고 비는데 그 중에서도 용단지에는 가장 큰 그릇에 떠놓고 한 해의 농사를 기리고 이듬해의 풍년을 기원한다. 이는 용단지가 농경신이기 때문이다. 대보름에는 역시 찰밥(오곡밥)을 용단지에 올려 풍농과 집안의 안녕을 기원한다(金明子 1986 b:83). 가을 추수 때에 햇쌀을 거두면 손 없는 길일(吉日)을 잡아 단지 안의 쌀을 갈아 넣는다. 이 때 역시 의례를 올린다. 용단지에 대한 의례는 주로 그 집의 여자 상어른이 하며 집안에 우환이 있는 등 특별히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경우 간혹 무당과 같은 전문 사제자에게 의례를 의뢰하는 수도 있다. 하지만 대개는 주부가 올린다. 전문 사제자가 할 경우는 주로 용단지를 새로 모실 때다. 또한 용단지에 대한 의례는 독자적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다. 성주, 조왕, 삼신 등 여러 가신을 위하는 가정의 경우 이들 가택신과 함께 제의를 올리는데 순서는 가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부엌에서 밥을 짓거나 떡을 찌는 등 음식 장만을 하기 때문에 조왕에게는 음식을 따로 뜨지 않고 솔뚜껑을 열어젖힌 뒤(솔에 들어있는 채) 밥 위에 숟가락을 꽂고 축원을 한다. 이어 성주-용단지-삼신의 순서로 제를 지내거나 용단지에 먼저 밥과 정화수를 올린 후 제의를 지내는 수도 있다. 또는 부엌에서 조왕에게 의례를 올린 후 성주-삼신-용단지, 용단지-성주-삼신의 순

3) 농사에는 물이 기본이어서 수신(水神)은 곧 농경신으로 받아드린다.

서로 제를 지내기도 하는데 이러한 순서가 곧 가택신의 서열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가택신의 서열은 대체로 대주(大主)인 성주, 그 다음이 삼신 그리고 용단지-조왕의 순으로 생각하는 가정도 있고 성주-용단지-삼신-조왕의 순으로 여기는 가정도 있어 이 역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의례 주관자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가정에서 조출하게 행할 때에는 으레 주부가 된다. 성주의례는 대주(大主)인 가장(家長)이 직접 올리는 경우가 있으나 이 때에도 주부가 제물을 장만하여 진설하고 또 대주 곁에서 함께 정성을 드린다. 따라서 여성은 외적으로 가신신앙의 주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내적으로는 ‘정성’이라는 극진한 신심(信心)을 통해 가족원의 생존에 관여하며 아울러 가족원의 생존문제에 관여함으로써 신과 가족원 모두의 중개자적(仲介者的) 위치에서 신의 보살핌을 정성을 다하여 기원하는 것이다.(金明子 1984:238).

Ⅲ. 업신(神)과 동일시되는 용(龍)단지

가택신은 다신(多神)이지만 저마다의 기능이 있는 반면 또한 서로의 기능을 함께 함으로써 기능상의 혼재도 적지 않다. 장구한 역사를 통해 각 가신(家神)의 기능이 어느 한 신에게 통합된다거나 잔존하기는 하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 이것은 전승현장에서의 가신신앙의 한 특징이기도 하다(金明子 1984:232). 또한 우리의 민간신앙은 오랜 역사를 통해 외래종교와 융합되어 신앙상의 중층성을 이루고 있는데 가신신앙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불교신의 명칭이 가택신앙에 융합된 경우도 있다. 한 예로 제석신은 불교신이지만 가신신앙에서 제석은 지역에 따라 삼신 또는 조상신으로 받들어지기도 한다. 말하자면 명칭은 다르되 기능이 같은 것인데 이는 역시 오랜 역사 속에서 문화 복합을 이룬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실상 기능만을 논의하여 가신을 구별할 때에는 모호한 점도 없지 않다. 특히 몇몇 가택신과는 밀접한 관련 속에 거의 동일한 양상을 드러낸다.

안동지역의 용단지는 가택신 가운데 특히 업신(神)과 직접적으로 관련하고 있다. 용단지를 위하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용단지는 곧 업신이라 여긴다. 물론 업신을 구분하여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지극히 드물다. 용단지가 집안 우물에 있는 정신(井神)과도 관련되어 수신(水神)으로서의 기능도 하면서 용=물이라는 도식이 성립되지만 우물신(정신(井神))은 가택신으로서의 위상이 용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또한 용단지와의 관련은 업 이외에 터주도 해당되는데 이 역시 업신에 비해서는 약하다. 가장 밀접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택신은 업신이다.

업신(神)은 가내의 어느 곳, 주로 광이나 곳간과 같은 은밀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재복(財福)을 준다는 가택신이다. 업, 업왕신(王神), 업왕, 업위신(位神)이라고도 하지만 민간에서는 업이라는 말과 함께 지키미, 지킴, 집지킴 등으로 불리운다(金明子 1989:403). 경우에 따라서는 범위를 넓혀 집을 지켜주는 모든 가택신을 집지킴, 마을을 지켜주는 동신(洞神)을 마을 지키미라고도 하지만 대개는 좁은 의미로 사용한다. 가택의 지키미와 마찬가지로 마을의 지키미로 구령이가 있다는 사례가 조사 되기도 했다.(金明子 1993: 192~193)

업신이 특히 지키미나 집지킴으로 불리는 까닭은 그 집을 수호해 준다고 믿기 때문인데 업의 사전적 해석은 대체로 집안에서 살림이 그 덕이나 복으로 잘 보호되고 늘어간다

는 동물이나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업이 나가면 패가(敗家)하는 것으로 전해지며 실제 그러한 사례는 상당히 조사되고 있다. 업신을 위하는 가정에서는 대체로 신체(身體)를 봉안하지는 않으나 구렁이, 족제비, 두꺼비 등을 업으로 상정한다. 또한 사람에게 붙어다닌다는 인업도 있으나 이 역시 신체가 없는 건궁이다 간혹 업왕가리라 하여 짚주저리로 된 신체를 모시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지극히 드문 현상이다. 특히 인업은 가족 가운데 복이 있는 사람⁴⁾

에게 붙어다니면서 그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업신으로서 그 모양이 사람과 같다고 한다. 인업의 형상은 인업을 달고 다니는 사람과 같은 형상을 하기 때문에 업의 대우를 받는 사람과 인업은 별개의 존재인데도 그 사람이 곧 인업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업신은 재복의 신이어서 이 신이 그 집을 나가면 망하며 평소에도 사람 눈에 띄이면 불길하게 여겨 제의를 지내며 정성껏 모신다. 집에서 위했던 업구렁이라든가 업족제비가 가족들의 눈에 띄거나 나가버려 재물이 사라지고 가족은 우환이 생겨 패가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업구렁이를 새로 받아들여 부자가 되는 사례도 있다(金明子 1989:404~417).

업신(神)은 재복신으로 상당히 비의성을 지니고 있는데 안동지역의 용단지도 업신인 지킴이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편적이다. 용단지를 업계통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는 견해(長壽根 1982:109)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용단지를 위하는 신봉자들은 용단지와 업을 동일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안동 송천동의 권점선할머니는 용단지를 극진히 모시면 집에 용이 들어와서 재물을 불게 해주고 가내가 평안하도록 지켜준다고 말한다. 또 용은 쫓대기(꼬리)가 몽탁한 게 구렁이 같은 것이며 이것이 집에 들어와 있으면 재물이 붙어 난다고 한다. 용은 재산을 일으키는 집지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시나 용이 나가면 살림이 줄어들다. 곧 재물이 나가는 것과 같다(金明子 1988:64~65). 또한 용은 추상적인 존재인데다 주로 현몽을 한다는 점이 인업과도 공통점을 지니는데(金明子 1988:411~412) 인업이 같은 사람에게 늘 붙어 다니는 반면 용은 간혹 따라 다닌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집을 때 용을 가마에 싣고 왔다는 것은 용이 따라 왔다는 이야기다.

안동군 풍천면 어담동 조신리 심규원씨(남. 1993년 현재 75세)는 애매하나마 용단지와 업구렁이를 구별하고 있다. 그의 조부께서 벌여놓은 재산이 많았으나 무곡도(무극도, 國際道德協會)라는 신흥종교를 믿다가 재산을 거의 없앴다. 심규원씨가 6세 때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 그나마 있었던 살림살이가 더욱 줄었다. 부친이 상처하신 후 외지로 나가셨다가 9년만에 집으로 돌아오셨다. 외지로 나가실 때 제보자 심규원씨가 뒤란 정지(부엌) 모퉁이에서 흑질배기(구렁이)가 산 밑으로 슬며시 가는 것을 보았다. 그 때 제보자 심규원씨는 14살 정도 되었었는데 ‘아이고 흑질배기 보라’고 외쳤다. 당시 일제강점시로서 친척 어른들이 다 잡혀가고 부친은 이를 피해 외지생활을 약 10년간이나 해야했다. 지킴이가 나간 것은 바로 그 집안의 불길함을 예조한 것이었다.

용단지와 업구렁이를 별개로 생각하는 예도 있지만 이는 실상 상당히 애매하다. 용왕업의 은거처도 업구렁이와 마찬가지로 솔갑 아래, 뒤주, 곳간, 고방, 뒤꼍 그리고 용단지 속 등 어두컴컴하고 습한 곳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용왕업 역시 업구렁이와 마찬가지로 역시 신체가 없는 건궁업으로 가산(家産)과 가운(家運), 가택수호를 맡고 있다. 또한 용왕업은 구렁이, 족제비, 두꺼비 등 여타의 동물과는 달리 상상의 존재이므로 꿈에 현몽

4) 애초 복(福)이 있다기보다 업을 달고 있기에 복있는 사람으로 대우받는 것이다. 따라서 인업과 인업을 달고 다니는 사람은 별개업에도 업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곧 인업으로 인식된다. 인업은 그 형상이 드러나지 않지만 인업을 달고 다니는 사람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을 하거나 점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가령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탈이 잘 나고 집안이 편안하지 못할 때 점괘에 용왕업이 나타나면 의례를 치른다. 집안 일이 안될 때 가족의 꿈에 용이 나타나서 ‘내가 배가 고프니 날 뭘 좀 달라’고 한다. 그러면 주부는 용단지 앞에 정화수를 떠올리고 빈다. 그리고 집안의 재산이 자꾸 나갈 때 손이 없는 날을 택해서 ‘맑고 맑은 정원수(정화수)를 고두약밥에 시루편 세 편에다가 열손으로 사변하오니 이 미련한 중생이 아무 것도 모르이꺼네 소원을 들어주소’라고 주언을 하며 제를 지낸다. 이처럼 애매하나마 용단지와 업구령이를 구별하는 수도 있지만 대체로 용단지를 봉안하는 것은 바로 용왕업의 모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金明子 1989:40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단지는 업신과 동일한 기능을 할 뿐 아니라 용단지가 곧 업신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용을 구령이보다 더욱 신성(神聖)한 존재로 본다면, 용단지를 업신의 신체(身體)로 보는 데에는 문제가 제기된다. 곧 용단지와 구령이를 구분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구령이와 용을 동일한 존재로 여긴다면 용단지를 업신의 신체로 보는 데에 무리가 없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령 용단지와 업신은 애초 별개의 것이었으나 기능이 복합되어 업신이 퇴화되었거나 아니면 용단지에 통합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또는 용단지를 아예 구령이업의 범주에서 볼 수도 있다(金明子 1989:417~418). 이와 같은 상관성의 문제는 중부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위하는 터주와 업신, 전남지역에 나타나는 철룡과 터주와의 관계에서도 해당되어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터주는 그 집의 터를 맡고 있는 신(神)으로서 터주신 또는 지신(地神)이라고도 한다. 터주의 자리는 뒷뜰 장독대 옆인데 신체로 터주가리를 만들어 모신다. 터주가리는 서너 되들이의 옹기나 질그릇 단지에 벼를 담고 뚜껑을 덮은 다음 깊으로 쪼아서 원추형 모양을 만들어 덮은 것이다.(金泰坤1983:19). 이 같은 터주가리는 경기도 지방에서 볼 수 있으며 충남 서산(忠南 瑞山)지방에서는 터주를 지신(地神)이라 일컬으며 이에 올리는 제의를 지신제(地神祭)라고 한다(경희대 민속학연구소편(慶熙大 民俗學研究所編) 1987:778~825),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엄미리(京畿道 廣州郡 中部面 奄尾里)라는 산간마을에는 짚주저리를 덮은 터주가리가 있다. 집 뒤꼍 장독대 부근에 터주가리가 봉안되어 있는데 그 댁에서는 터줏대감이라 했다. 또 다른 댁의 터주 역시 부엌 뒤 장독대 옆에 있었는데 짚주저리는 없이 터주단지만 있었다. 전에는 짚주저리를 씌었으나 근래에는 주저리를 만들 사람이 없어 단지 채로 놓아두었다고 한다(金明子 1989:417~418). 역시 이 마을에서 1960년대에 업가리와 터주가리를 보았다는 보고(報告)(張壽根 1982:110)가 있어 업신과 터주는 별개지만 기능과 신체마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터주가 안동지역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터주 역시 집터와 더불어 재복을 맡은 신인데 용단지와 마찬가지로 단지 안의 쌀은 해마다 햇벼가 날 때 갈아넣는다. 이 때 단지 안에 들어있던 쌀 역시 남을 주지 않고 가족들만이 먹는다. 용단지 속에 들었던 쌀이 그렇듯이 터주단지 안의 쌀 역시 신성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터주 역시 재복을 맡는다는 점에서 업신, 그리고 용단지와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물론 터주는 업신처럼 동물을 상징하여 나간다가나 들어온다는 관념은 없다. 그러나 안동군 풍천면의 심규원씨는 용단지를 특별히 ‘터용’이라고도 하여 터주의 성격도 부여하는데 이는 용단지가 집터를 수호해 준다고 믿기 때문이다.⁵⁾

안동지역에서 터주신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이 역시 용단지에 통합되었기 때

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업신 역시 애초에는 있었으나 용단지에 통합되었을 가능성도 추측해 볼 수 있다.

IV. 맺음말

오늘날 가택신은 퇴색된 가운데서도 산발적으로나마 위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애초 여러 가택신이 있지만 주요 가택신으로 축소되어 모셔져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근래 경북 풍기지역에서 가택신을 조사한 결과 축소와 함께 성주신앙에 통합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지역에서는 주택의 구조에 따라 부엌의 조왕 뿐 아니라 성주도 부엌에 모시는 경우가 흔한데 주택개량 후 조왕은 거의 사라졌다. 대신 성주를 부엌 싱크대 위에 모신 경우가 있고 또 부엌 찬장에 성주단지를 위해 놓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선지 이곳에서는 ‘성주 조왕’이라고 아예 붙여서 말하는 제보자도 있다(金明子 1993:190). 안동의 용단지도 어쩌면 이처럼 여타의 가택신과 통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 지역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는 터주의 경우 그러한 가능성은 더욱 짙으며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업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택신을 비롯한 민간신앙의 퇴색 요인에 대해 의식(意識)의 개혁이라든가 외래종교의 유입, 정부의 시책, 주택의 개량 등 여러 가지를 들고 있다. 그 요인들을 새삼 열거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개량은 사실상 가택신의 자리를 앗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용단지는 안동지역을 대표하는 가택신으로 전승이 되고 있다.

가택신 가운데 그 지역에서만 독특하게 불리는 경우는 용단지 이외에 전남지역의 칠룡, 그리고 제주도의 안칠성과 밧칠성을 들 수 있다.

칠룡은 다른 지역의 터주나 업의 성격을 지닌 가택신으로 보고 있으며(張壽根 1982:104~105) 안칠성과 밧칠성은 사신(蛇神)으로 관념되고 특히 밧칠성은 본토의 업으로 보기도 한다. 안칠성은 고팡(곶간) 안에 단지로 모셔져 있고 밧칠성은 다른 지역의 터주처럼 후원(後苑)에 짚주저리를 덮은 단지가 신체로 모셔져 있다(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주도 편(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濟州道 篇 1977:78)). 칠룡은 전남에서 가신으로 뿐 아니라 동신으로도 위해져 마을 동제당 가운데 칠룡당이라는 것이 있다. 칠룡 또는 칠령으로도 불리는 이 가택신은 장광, 뒤결장독, 뒤결 등에 모시고 있다. 구례군 산동면 위안리 하위(求禮郡 山洞面 位安里 下位)마을에서는 집 뒤의 터신을 칠룡(또는 칠령)이라 하며 집 뒤에 산줄기가 뻗어있을 때 모신다고 하지만 산줄기가 있건 없건 모신다. 집 뒤를 칠룡이라고도 한다. 진도면 사정리(珍島面 射亭里)에서는 칠룡할마이라 하여 집 뒤, 담 안쪽으로 오줌 안누는 곳에 오가리를 묻는다. 안에는 쌀과 종이를 담아서 오가리의 몸뚱이를 묻고 구부(口部)는 지상에 내놓아서 좋은 접시로 덮고 짚주저리를 씌운다.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務安郡 海際面 松石里)에서는 산을 끼고 있는 집에서 뒤결에 칠룡단지를 모시며 단지 속에 한지(韓紙)만 넣어둔다. 이는 산신을 위하는 것으로 여긴다(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全南 篇 1977:260~261).

그런데 충북 영동군 양산면 봉곡리(忠北 永同郡 陽山面 鳳谷里)에서는 터주단지를 청

5) 터는 집터의 뜻도 있지만 또는 지신(地神)의 뜻도 지니고 있다. 혹은 가택신을 통틀어 ‘터’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명절과 같은 날 ‘각 터에 떡을 올려 간단하게나마 빈다’고 할 경우 이 때 터는 가택신 또는 그 자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룡단지라고도 하며 신체는 조그만 항아리에 신곡(新穀)을 넣은 것으로 역시 뒷뜰 담뭍이나 장독대에 모신다(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全南 篇 1983:19). 이처럼 뒤뜰의 장독대에 자리하고 있어 철룡을 간장, 된장 등 장을 보살펴주는 장독신으로 보기도 한다(金泰坤 1983:19). 하지만 위의 사례를 보면 철룡은 장독신이라기 보다 오히려 터주에 가까운 데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충북에 청룡단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전남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용단지는 간혹 인근의 풍기, 예천, 상주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나타나지만 역시 안동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가택신이다. 물론 용(또는 용신, 용왕)은 여타의 지역에서도 모시는 신이지만 용단지는 이들 용신을 보다 구체화한 용신신앙의 한 양상으로서 안동을 대표하는 가택신이다. 용단지가 왜 안동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는 실상 구렁이업이라든가 족제비업 등 업신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중부 이북지역을 연구하는 것처럼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가택신의 신체를 단지로 하는 예는 용단지 이외에도 여럿이 있다. 우선 신체단지를 모두 신주(神主)단지 혹은 귀신단지라 한다던가 성주단지라든가 삼신단지, 조상단지, 세준단지, 터주단지를 비롯하여 성주독, 또는 성주동이 등도 크기가 다를 뿐 모두 단지류다. 이밖에도 신체를 용기로 하는 것은 상자, 당세기 등과 같은 상자류와 바가지, 고리 등이 있으며 이외의 신체로 백지(白紙)를 수공한 것이라든가 지폐(紙幣)를 드리운 것 등이 있는데 이들 중 용기의 신체로서의 발원을 바가지-단지-당세기로 계보화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단지'유형을 곡령(穀嶺)과 관련된 신령(神靈)신체로 보는 반면 지폐 유형은 택신(宅神)=지신(地神)과 결부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金宅主 1985:331~332). 이렇게 본다면 용단지는 곡령과 관련된 조령으로서 조령으로서 용단지는 농경신일 뿐 아니라 조상신의 성격도 지니는 셈이다. 경북 영덕군 남정면 남정리(慶北 盈德郡 南亭面 南亭里)라는 해안을 낀 마을에서는 전에 간물단지라 하여 동신(洞神)의 신체를 단지로 봉안했었다. 이 단지 안에는 해마다 바닷물을 갈아 넣어 용왕의 수호를 받고자 했다. 이 마을에서는 예부터 물이 귀한 데다 화재(火災)가 자주 일어 이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간물단지를 모시기 시작했다(金明子 1986 a :112~119). 이를 통해서도 용신의 다양한 기능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용신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된 계기라든가 사적 맥락 등 많은 연구과제가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참고문헌

- 慶熙大 民俗學研究所 篇(1987), 瑞山民俗誌(上)·(下), 瑞山文化院
 金明子(1984), 家神信仰의 性格과 女性像, 女性問題研究 13집, 曉星女大 女性問題研究所
 (1986 a), 간물단지 信仰의 龍神信仰의 性格, 月山 任東權博士 頌壽記念論文集 民俗學 篇
 (1986 b), 원두들의 民間信仰과 歲時風俗, 安東文化 7집, 安東大 安東文化研究所
 (1987), 岳砂의 洞祭와 家神信仰, 安東文化 8집
 (1988), 松川洞의 家神信仰과 歲時風俗, 安東文化 9집
 (1989), 邑神考(1), 斗山 金宅主博士 華甲記念 文化人類學論叢, 論文集刊行委員會
 (1993), 豊基의 民俗宗教와 信仰生活, 民俗研究 3집, 安東大 民俗學研究所
 金富軾, 三國史記
 金泰坤(1983), 韓國民俗信仰研究, 集文堂

金宅圭(1985), 韓國農耕歲時的 研究, 嶺南大出版부
 文化財管理局 篇,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慶北(1980)·全南(1977)·濟州(1977)·忠北(1977) 편
 李能和(1927), 朝鮮巫俗考
 張壽根(1982), 家神信仰, 韓國民俗大觀 3, 民間信仰·宗教 편,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朝鮮總督府 篇(1938), 釋尊·祈雨·安宅



사진 1 나락을 담은 겨칠용
 사진 1 나락을 담은 겨칠용



사진 2 금소동의 용단지 두개가 나란히 모셔져 있다
 사진 2 금소동의 용단지 두 개가 나란히 모셔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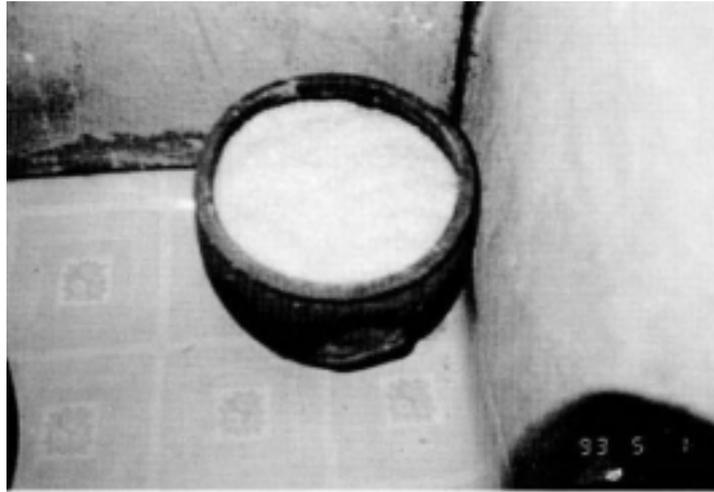


사진 3 쌀을 담은 안용(쌀용)

사진 3 쌀을 담은 안용(쌀용)